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 개최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용)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후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세미나가 지난 7월 8일 전경련에서 100여명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임원 및 자율준수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쟁정책의 필요성과 CP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공정위 허 선 정책국장은 기업이 경쟁정책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핵심가치라고 언급하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 국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가 자율준수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KT 이영남 국장은 「국내기업의 CP 도입시 예상장애 및 극복방안」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임원에게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자율준수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기업에 의한 자율이행이 가능하며, 경쟁이 성숙화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과 기업의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는 EU 경쟁당국 또는 미국의 경우 국제카르텔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방책으로 경쟁법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미국 양형기준상의 위법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는 외국에서도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